



2007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제 1 교시

언어 영역

공 통

성명

수험번호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제는 2점 20문항, 3점 20문항 총 40문항입니다.(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조하십시오.)

1. 비슷한 단어들을 이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과제를 수행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단 어	문 장
①	들르다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u>들렀다</u> 가 친구를 만났다.
	들리다	어머니는 명절에 내려온 아들에게 음식을 잔뜩 <u>들려</u> 보냈다.
②	겨루다	그는 1차 예선을 통과해서 16명이 <u>겨루는</u> 본선에 진출했다.
	겨누다	나는 충을 숲 쪽으로 <u>겨누고</u> 천천히 방아쇠를 당겼다.
③	그슬리다	그녀는 올여름 햇볕에 살을 너무 <u>그슬렸다</u> .
	그을리다	어젯밤에 졸다가 촛불에 머리를 <u>그을렸다</u> .
④	늘리다	우리 회사는 주차장을 더 넓게 <u>늘렸다</u> .
	늘이다	그는 <u>늘였던</u> 고무줄을 재빨리 놓았다.
⑤	받치다	책장이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앞쪽에 종이를 접어서 <u>받쳤다</u> .
	받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뒤에서 달려온 자전거에 <u>받혔다</u> .

2. <보기>의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보 기>

주관을 완전히 배제하고 역사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 반드시 가능하지 않다. 역사가의 의무는, 자신의 이론이 잠정적이며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주어진 가능성 내에서 최대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 노력한다. ㉢ 프라이가 말한 것처럼 역사가는 문학과 철학을 역사적으로 다룬다. 만약 역사가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한다면 역사는 ㉣ 남을 속이는 기만적인 것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양심 있는 역사가라면 자기의 이론적 원칙을 확실히 밝히고 자기가 소홀히 취급한 자료들도 존재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 ① ㉠은 꾸밈을 받는 서술어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결코’로 고쳐 쓴다.
- ② ㉡은 주어와 서술어 간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노력하는 것이다.’로 고쳐 쓴다.
- ③ ㉢은 문단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은 뒤에 나오는 ‘기만적인’과 의미가 중복되므로 삭제한다.
- ⑤ ㉤은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비록’으로 고쳐 쓴다.

3.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 문구를 작성해 보았다. <보기>에서 제시한 전략을 모두 충족한 것은? (3점)

<보 기>

효과적인 광고 문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반복을 통해 주제를 강조한다.

둘째, 생략을 통해 여운이 느껴지게 한다.

셋째, 추상적인 것을 형상화하여 구체적인 느낌을 준다.

① 반으로 접는 순간 모두가 즐거워집니다.

지하철에서 아직도 신문을 펼치고 보시나요?

나만을 위한 생각을 반으로 접는 순간

우리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 ○○지하철공사

② 안전하니까 안심하십시오.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빠처럼

최고의 첨단 기술, 최고의 정성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 △△경비공사

③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국물맛이 이렇게 좋아지다니…….

여러분, 알고 계세요?

간장 하나만 바꾸어도 음식맛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간장은 역시, 전통의 맛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간장

- □□간장

④ 행복을 한 채 지었습니다.

마음 하나 쌓고 정성 하나 쌓아

나눔을 위한 행복의 집을 만듭니다.

행복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있으며 더불어 느끼는 것이기에…….

- ◇◇아파트

⑤ 쌤, 안녕쌔? 꾸벅! m(-.-) m(_ _)

칠수! 방가방가 (*^^*)

영희야, 나도 방가방가. (^..^)//

어느 나라 말일까요?

올바른 인터넷 언어 사용!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킵시다!

- 공익광고

4. <보기>의 우화를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로 창작한 다음, 창작 의도를 고려하여 미흡한 장면을 골라 보완하려 한다. 그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옛날에 어느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와 오리 두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다정한 사이여서 언제나 같이 지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어 물이 얼마 남지 않자 연못을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뛰는 동물이고 오리는 나는 동물이어서 개구리와 오리가 함께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떨어지기 싫었던 개구리와 오리는 궁리 끝에 좋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두 마리의 오리가 막대기의 양끝을 부리로 물면 개구리가 막대기의 가운데를 입으로 물고 매달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 다른 연못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아가고 있을 때, 들에 있던 농부가 감탄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영리하구나. 누가 저런 생각을 해냈을까?” 그 말을 들은 개구리가 냉큼 대꾸했습니다. “바로 내가 했지!” 개구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면 구성 의도	구체적 장면	보완 전략
[의도 1] 개구리와 오리의 우정 제시	#2. 연못에 같이 있는 개구리와 오리 개구리 : (오리를 바라보며) 재들은 하루 종일 물 위에 떠서 뭐 하나. 나 혼자 심심하게 내버려두고.	⇒개구리와 오리가 예전부터 서로 친분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대사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어. ……………①
[의도 2] 개구리와 오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부각	#6. 햇볕이 쨍쨍 내리쬘는, 물이 줄어드는 연못 오리1 : 요새 비가 안 와서 걱정이야. 연못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개구리 : 뭘 걱정이야. 곧 장마철이잖아. 비 많이 올 텐데 뭐. 작년에도 그랬잖아.	⇒개구리의 대사를 없애고, 가뭄에 대비하지 않았다가 매우 고생했던 기억을 되살리는 영상을 오버랩시키는 것으로 대치하면 좋겠어. ……②
[의도 3] 개구리와 오리의 협동 정신 강조	#11. 하늘을 날려고 준비하는 오리와 개구리 개구리 : (불안한 듯) 나 이거 안 타면 안 되겠니? 무서워. 오리2 : 타기 싫으면 말아라.	⇒개구리와 오리의 대사는 ‘서로 도와 함께 갈 수 있어 기쁘다.’라는 내용으로 바꾸고, 개구리와 오리의 신나는 표정을 클로즈업하는 것이 좋겠어. ……………③
[의도 4] 개구리의 어리석은 행동 제시	#17. 하늘에서 떨어지는 개구리 농부 : 야! 재들 봐라. 아주 영리하구나. 누가 저런 생각을 해냈을까? 개구리 : (말하고 싶으나 무서워서 계속 신음) 음, 음.	⇒개구리 대사를 “바로 내가 했지!”로 바꾸고, 떨어지는 개구리의 표정이 의기양양한 것에서 당황한 것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좋겠어. …④
[의도 5] 개구리와 오리 이야기의 종합적 평가	#20. 파란 하늘에 날아가는 오리 두 마리 서술자 : (배경 음악에 맞추어) 이 오리와 개구리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개구리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남의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조금 함을 비판하고, 사람은 늘 남의 비판에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이는 것이 좋겠어. ……………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히 지방은 비만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대부분의 영양학자들은 지방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보다 단위 질량당 더 많은 칼로리를 내기 때문에 과체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저지방 식단이 비만을 막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저지방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는 오래 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비만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섭취하는 지방의 양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섭취하는 총열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 하면 여러 질병의 원인으로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이지방’이다. 전이지방은 천연 상태의 기름에 수소를 첨가하여 경화시키는 특수한 물리·화학적 처리에 따라 생성되는 것으로서, 몸에 해로운 포화지방의 비율이 자연 상태의 기름보다 높다. 전이지방은 ‘부분경화유’나 ‘야채쇼트닝’ 등의 형태로 치킨, 케이크, 라면, 쿠키 등 각종 식품에 첨가된다. 전이지방은 각종 신선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과자류를 잘 부서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식품 첨가물로 흔히 쓰인다. 전이지방을 섭취하면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이나 유방암 등이 발병할 수 있다. 이러한 전이지방이 지방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지방이 심장 질환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의 누명을 어떻게 벗겨줄 것인가? 중요한 것은 지방이라고 모두 같은 지방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이다. 지방은 인체에서 비타민이나 미네랄만큼 유익한 작용을 많이 한다. 견과류와 채소기름, 생선 등에서 얻는 필수 지방산은 면역계와 피부, 신경 섬유 등에 이로운 구실을 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 불포화지방의 섭취는 오히려 각종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체내의 지방 세포는 장수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불포화지방을 무턱대고 많이 섭취하라는 것은 아니다. 인체의 필수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람들 중에는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 체내의 지방 흡수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비만치료제를 이용하는 이도 있는데, 이러한 비만치료제는 인체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만일 이 비만치료제가 몸에 좋은 지방과 그렇지 않은 지방을 구별하는 눈을 가졌다면 권장할 만하다. 하지만 모든 유형의 지방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이 비만치료제는 지방질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질과 함께 소화 흡수되어 시력 보호나 노화 방지를 돕는 지용성 비타민까지 걸러내게 마련이다. 시력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촉진하는 약품을 먹을 이유는 없다. 그것도 만만찮은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말이다.

지방이 각종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지방 그 자체의 속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지방을 섭취하는 인간의 ‘자기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다. 체지방의 경우 과다하게 축적되면 비만한 체형을 형성하는 주요인이 되기도 하고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지만, 적당히 신체에 고루 분포된 체지방은 균형 잡힌 체형의 필수 조건이다. 그러므로 지방과 다른 영양소와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좋고 나쁜 지방을分別력 있게 가려 섭취한다면 ‘지방 걱정’은 한낱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다.

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지용성 비타민 중에는 시력을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이로운 것도 있다.
- ② 전이지방은 신선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과자류를 잘 부서지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다.
- ③ 지방이 단백질과 탄수화물보다 단위 질량당 칼로리가 높다는 것은 최근에 오류로 밝혀졌다.
- ④ 지방을 섭취함에 있어서 ‘자기 관리’가 철저하면 지방이 야기하는 여러 질병을 피할 수 있다.
- ⑤ 필수 지방산은 면역계와 피부, 신경 섬유에 유익할 뿐 아니라 정신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

6.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새로운 용어를 소개하고 그 유래를 밝히고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③ 서로 대립하는 견해를 비교하고 이를 절충하여 통합하고 있다.
- ④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 ⑤ 대상에 대한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고 있다.

7. <보기>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위 글의 글쓴이가 조언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20대의 날렵한 몸매는 이제 추억 속의 사진에만 남아 있다. 이리저리 쏘리며 출렁이는 뱃살은 거추장스럽기 그지없다. 내 키가 170cm인데 체중이 90kg이다. 물론 체지방 수치도 정상치를 훨씬 넘긴 지 오래다. 스스로 생각해도 확실히 비만은 비만이다. 가끔씩 이전의 몸매에 대한 향수와 건강상의 문제로 다이어트를 시도해 봤지만 그때마다 치킨, 피자, 라면, 불고기, 삼겹살, 아이스크림, 땅콩 등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의 고소한 유혹에 넘어가 매번 실패했다.

이번 달부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식사 때마다 지방이 포함된 음식은 아예 입에도 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랬더니 맛있는 것들이 항상 눈앞에 어른거려 미치겠다. 과연 건강도 회복하고 균형 잡힌 몸매로 돌아갈 수 있을까…….

- ① 비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섭취하는 총열량을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 ② 몸에 좋은 지방과 몸에 나쁜 지방을 분별력 있게 가려 섭취하십시오.
- ③ 균형 잡힌 몸매와 건강을 위해서는 과다 축적된 체지방을 줄여야 합니다.
- ④ 치킨이나 라면 등 전이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의 섭취는 가급적 줄이십시오.
- ⑤ 비만을 극복한 후에도 질병 없이 장수하려면 불포화지방의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8. ㉠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교각살우(矯角殺牛)
- ② 부화뇌동(附和雷同)
- ③ 양약고구(良藥苦口)
- ④ 토사구팽(免死狗烹)
- ⑤ 표리부동(表裏不同)

[9~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복점 안에서 떼어 입은 대마직¹⁾ 국민복은 양복장²⁾보다도 조금 더 청백 순사를 얼굴 간지럽게 하였다. 작년 초가을, 좋지 못한 풍문이 돌리는 파출소 건너편의 양복점에서 맞추어 입은 것이었다. 공정가격 삼십이 원 각순³⁾데, 양복을 찾아 들고는 지갑을 꺼내는 체하면서,

“얼마죠?”

하고 물었다. 지갑에는 돈이라야 삼 원밖에 없었다.

양복점 주인은, 온 천만에 말씀을 다 하신다면서, 어서 가시라고 등을 밀어 내었다.

이 양복장이나 양복은 한 예에 불과하고, 팔 년 동안 순사를 다니면서, 그 중에서도 통제경제가 강화된 이삼 년, 육십 몇 원이라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지탱해 나갈 수 없는 생활을 뇌물 받는 것으로써 보태어 나왔다. 몇 십 원씩, 돈 백 원씩 쥐어 주는 것을, 사양하다가 못 이기는 체 받아 넣기 열말는지 모른다. ㉠ 자청 해 주는 것을 따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권 때면 그럴싸한 사람을 찾아가서,

“수히 값을 테니 백 원만…….”

하고 가져다 쓰기도 여러 번이었다.

술대접을 받기는 실로 부지기수였다. 쌀, 나무, 고기, 생선, 술 모두 다 그림지는 아니할 만큼 들어도 오고, 청해다 먹기도 하고 하였다. 못 해주었네 못 해주었네 하여도, 아낙의 옷감도 여러 번 얻어다 준 것이 있었다. 공교로이 그 뉴똥치마만은 기회가 없고서 8·15가 덜컥 달려들고 말았지만.

이렇게 그는 작은 것이나마 뇌물을 먹지 아니한 것이 아니면서도, 스스로 청백하였노라고 팔분의 자신이 있었다. 맹순사의 생각엔 양복벌이나 빼앗아 입고, 돈이나 몇 십 원, 돈 백 원 받아 쓰고, 쌀, 나무며 찬거리나 조금씩 얻어먹고, 술대접이나 받고 하는 것은, 아무나 예사로 하는 일이요, 하여도 죄 될 것이 없고, 따라서 ㉡ 독직이 되거나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적어도 독직이나 죄가 되자면, 몇 만 원 집어먹고서 소위 팔자를 고친다는 등, 허리띠를 풀다는 등의 수준에 올라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 맹순사는 몇 만 원은커녕, 한 번에 백 원 이상을 얻어먹어 본 적이 없었다. 그런고로 맹순사는 스스로 청백타 하던 것이었다.

주위의 동간들은 가만히 눈치를 보면, 열에 아홉은 들뭇들뭇한 한몫을 보고 늘어져 만 원짜리 집을 사느니, 오십 석 추수의 땅을 양주에다 사놓았느니, 상사회사를 꾸며 가지고 대주주가 되어 사직하고 나가느니 하였다. 맹순사는, 나도 제발 그런 거리가 하나 걸렸으면…… 하다못해 집 한 채 살 거리라도 좀 걸렸으면…… 하고 초조와 더불어 연방 그런 구멍을 여새겨 보았었다. 그러나 어인 일인지, 한 번도 걸리는 적이 없었다. 그래서 끝내야 쓰레기판만 뒤지다가, 소위 청백한 채로 칼을 풀어 놓고 말았다.

큰 덩치를 먹을 욕심과 기대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의사는 문제가 아니었다. 아무튼지 큰 것을 먹지 아니하였으니, 따라서 부자가 되지를 아니하였으니, 나는 청백하였노라, 이것이 맹순사의 청백관이었다.

부슬비를 우산으로 가리면서, 맹순사는 군정청 경찰학교로 향하였다. 품에는 진작부터 써가지고 다니던 지원서와 이력서가 들어 있었다.

8·15 직후, 줄곧 누가 몽둥이로 후려갈기는 것만 같아서, 으스스한 골목을 지나노라면 시퍼런 단도가 옆구리를 푹 찌르는 것만 같아서, 예라 사람 감수하겠다고 칼을 풀어 놓기는 하였었다. 그러나 그것이나마 직업을 잃고 나니, 하루하루 다가든다는 것이 반갑지 아니한 생활난이었다. 아까 아낙이 하던 말이 아니라도, 수중에 돈냥 있는 것은 거진 밑바닥이 보이고, 비로소 쌀, 나무 들일 길이 ㉢ 막연할 판에 이르렀다.

세상은 돈도 흔하고, 일거리도 많고, 펍으나 풍성풍성한 것 같았다. 그러나 순사밖에 다닐 줄 모르는 전순사 맹아무에게는 그리 수월히 판 직업이 ㉣ 친신되어지지 않을 아니하였다.

‘배운 도적질이 그뿐이니 ㉤ 무가내하로다. 쫓, 세상도 새 세상이니, 설마 어떠리.’

마침내 이렇게 단념 같은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었다.

모자도 정복도 패검도 다 옛것이요, 완장 한 벌로써 해방조선의 새 순사가 된 맹순사는 ××파출소로 가기 위하여 종로를 동쪽으로 걸었다. 팔 년이나 다닌 경험자라서, 그 경험을 증명할 만한 몇 마디 테스트를 하더니, 그 당장 채용을 하였고 ××경찰서로 배속⁴⁾을 시켰다. 그리고 이튿날 출근을 하였더니, ××파출소에 근무를 하라는 영이어서 시방 그리로 가고 있는 참이었다.

옛날의 순사와 꼭 같이 차리고 하였건만 맹순사는 웬일인지 우선 스스로가 위엄도 없고, 신도 나는 줄을 모르겠고 하였다. 만나거나 지나치는 행인들의 동정이, 전처럼 조심하는 것 같은, 무서워하는 것 같은 기색이 없고, 그저 본숭만숭이었다. 더러는 다뽕 적의와 경멸의 눈초리로 흘겨보기까지 하였다.

함부로 체포도 아니 하고, 위협도 아니 하고, 뽐 같은 것은 물론 때리지 못하게 되었고 하니, 전보다 친근스러하고 안심한 얼굴로 대하고 하여야 할 것인데, 대체 웬일인지를 모르겠었다.

- 채만식, <맹순사>

- 1) 대마직 : 삼실로 짠 천.
- 2) 양복장 : 양복을 넣거나 걸어 두는 옷장.
- 3) 각수 : 돈을 '원' 단위로 셀 때, '원' 단위 아래에 남는 몇 전이나 몇 십 전을 이르는 말.
- 4) 배속 : 사람을 어떤 곳에 배치하여 종사하게 함.

9.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주인공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 ②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인 위치에서 관찰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사건과 관련을 맺고 있으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술하고 있다.
- ④ 주인공이 경험한 사건을 작품 속 다른 인물이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⑤ 주인공의 다양한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서술 시점에 변화를 준 부분이 있다.

10.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위 글에 나타난 서술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2점)

- ① 눈 마자 휘여진 대를 뉘라서 굽다턴고. / 구불 節(절)이면 눈 속의 프를소냐. / 아마도 歲寒孤節(세한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 ② 이련들 엇더하며 저런들 엇더하리. / 萬壽山(만수산) 드령층이 얼거진들 귀 엇더하리. / 우리도 이갓치 얼거져 百年(백년)까지 누리리라.
- ③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다라 안자 / 건넌 山(산) 바라보니 白松骨(백송골)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금즉하여 풀덕 띄여 내닷다가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 / 모쳐라 날랜 널식만정 예혈질 변하괘라.
- ④ 귀또리 저 귀또리 어엿부다 저 귀또리 / 어인 귀또리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자른 소리 節節(절절)이 슬픈 소리 제 혼자 우러 네어 紗窓(사창) 여윈 잠을 살뜨리도 깨우는구나. / 두어라, 제 비록 微物(미물)이나 無人洞房(무인동방)에 내 뜻 알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 ⑤ 한숨아 세한숨아 네 어느 틈으로 드러온다. /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에 암돌저귀 수돌저귀 배목걸새 뚝뚝 박고 크나큰 자물쇠로 숙이숙이 차연는되 병풍이라 털걱 접고 簇子(죽자)라 맥대골 말고 네 어느 틈으로 드러온다. / 어인지 너 온 날이면 잠 못 드러 하노라.

11. 위 글의 ‘맹순사’와 <보기>의 ‘이인국’이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벽 쪽 책꽂이에는 『이조실록(李朝實錄)』, 『대동야승(大東野乘)』 등 한적(漢籍)이 빼곡이 차 있고 한 쪽에는 고서(古書)의 질책(帙冊)이 가지런히 쌓여져 있다.

맞은편 책장 위에는 작은 금동불상(金銅佛像) 곁에 몇 개의 골동품이 진열되어 있다. 십이 폭 예서(隸書) 병풍 앞 탁자 위에 놓인 재떨이도 세월의 때묻은 백자기다.

저것들도 다 누군가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닐까 하는 데 생각이 미치자 이인국 박사는 얼굴이 화끈해졌다.

그는 자기가 들고 온 상감진사(象嵌辰砂) 고려청자 화병에 눈길을 돌렸다. 사실 그것을 내놓는 데는 얼마간의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국외로 내어 보낸다는 자책감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그였다.

차라리 이인국 박사에게는, 저렇게 많으니 무엇이 그리 소중하고 달갑게 여겨지겠느냐는 망설임이 더 앞섰다.

브라운 씨가 나오자 이인국 박사는 웃으며 선물을 내어놓았다. 포장을 풀고 난 브라운 씨는 만면에 미소를 띠며 기쁨을 참지 못하는 듯 생큐를 거듭 부르짖었다.

[중 략]

이인국 박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구, 나의 처세법은 유에스에이에도 통하는구나 하는 기고만장한 기분이었다.

청자병을 몇 번이고 쓰다듬으면서 술잔을 거듭하는 브라운 씨도 몹시 즐거운 기분이었다.

“미국에 가서의 모든 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 전광용, <꺼삐딴 리>

- ① 맹순사 :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보급 보물을 외국 사람에게 뇌물로 줄 생각을 하다니, 당신 참 나쁜 사람이군요.
- ② 이인국 : 당신도 뇌물을 즐겨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당신이 내가 뇌물을 줌 주었다고 해서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③ 맹순사 : 그래도 난 한 번에 백 원 이상 받아먹은 적은 없습니다. 몇 만 원씩 뇌물을 받아먹고서 팔자를 고친 사람들도 있는데…….
- ④ 이인국 : 내 행동도 그리 큰 잘못 같지는 않은데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값비싼 물건들을 무수히 갖다 바쳤잖아요.
- ⑤ 맹순사 :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큰돈을 뇌물로 받아 팔자를 고치려고 한 욕심은 없었습니다.

12.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방 전후의 사회상을 추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해방 직후 순사는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되었다.
- ② 해방 직후 순사를 대하는 일반인들의 자세는 많이 달라졌다.
- ③ 해방 전에는 순사에게 생필품을 뇌물로 주는 경우도 있었다.
- ④ 해방 전에는 순사에게 술대접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 ⑤ 해방 직후 일반인을 대하는 순사의 태도에는 변화가 있었다.

13.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 의미를 짐작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문맥을 활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짐작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문맥’이란 말은 글과 문장에 표현된 의미의 앞뒤 연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맥을 활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짐작하는 것은 그 단어가 사용된 앞뒤 구절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추리하는 것이다.

- ① ㉠ : 스스로 청함
- ② ㉡ : 이익을 혼자서 다 차지함
- ③ ㉢ : 갈피를 잡을 수 없게 아득함
- ④ ㉤ : 얻을 수 있게 됨
- ⑤ ㉥ : 어찌할 도리가 없음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의 삶은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어 왔다. 철학은 이러한 삶의 향상과 무관한 듯 보인다. 그렇다면 세계를 바꾸겠다는 철학의 야심은 단지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마르크스는 “㉠ 지금까지 철학은 세계를 해석해 왔을 뿐이다. 이제 철학은 세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플라톤 이래로 철학이 현실을 변화시켰던 역사적 사실은 철학사에 언제나 내재해 있었다. 예컨대 루소가 《사회계약론》을 집필한 것은 (㉡)을(를) 위 해서가 아니라 동시대의 불행을 치유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저서가 프랑스 혁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데카르트의 《방법 서설》또한 근대 서구 문명의 혁명적 진보의 기틀이 되었다. 플라톤 철학이 기독교 신학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결과, 서구 문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분명히 과학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엄청난 (㉢)이 있다. 이것은 그동안의 많은 과학적 결과들이 현실에 적용되어 온 사실에서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이에 반해 철학은 ‘하루 일과를 마친 후 하늘로 날아 오르는 새’라는 헤겔의 표현처럼, 근본적으로 유용성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철학은 단순히 (㉣)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실천적 힘을 가지고 있다. 마르크스가 ‘지금까지 철학은 세계를 해석해 왔을 뿐’이라고 하면서 해석 행위를 평가 절하하였지만, 이 행위는 어떠한 의미를 태어나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사건·사실을 ㉤ 의미의 우주로 밀어 넣는 것이다.

과학이 현실을 직접 변화시키더라도, 인간이 이를 의식하고 재해석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 그러한 변화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그 의미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철학의 해석 작업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각을 지속적으로 바꾸어준다. 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게 되면 그에 따라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되고, 결국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철학은 실천의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둘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석 자체가 세상을 직접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행동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철학은 (㉤)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1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구체적 사례 제시를 통해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③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답하는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 ④ 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 ⑤ 특정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15. <보기> 중,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내용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2점)

— <보 기> —

가. 철학은 과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위험에 대해 경고해 왔다.
 나. 철학은 사유와 성찰을 통해 이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왔다.
 다. 철학은 인간의 행동 양식을 바꾸려는 윤리학적 기획의 일환이기도 했다.
 라. 철학은 삶과 죽음, 존재의 본질과 같은 관념적 내용을 다루어 왔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16.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기억(記憶)하는 것
- ② 초월(超越)하는 것
- ③ 상상(想像)하는 것
- ④ 답습(踏襲)하는 것
- ⑤ 인식(認識)하는 것

17.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	㉥
①	지적 만족	경제적 기능	종교적 차원	개념적 유희
②	사회 개혁	자아성찰 기능	개념적 유희	학문적 성과
③	개념적 유희	실제적 효용	지적 만족	실천적 기능
④	종교적 신념	가치해석 기능	사회 개혁	자아성찰 기능
⑤	경제적 이익	실천적 기능	정신적 차원	종교적 신념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항의가 무사에게 눈짓하여 성의를 죽이려고 하는데 무사 중 태연이라 하는 사람이 큰 소리로 이르기
를, “세자께서 비록 왕명을 칭하나 어찌 동기간의 인륜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칼을 들어 모든 무사
를 물리쳤다. 항의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성의의 두 눈을 칼로 찔러 빼니 성의가 배 안에 엎어지
며 피가 흘러 얼굴을 적셨다. 이어서 성의가 탄 배의 조각을 깨뜨려 한 조각 위에 그를 얹히고 물결 위로
밀어버리니 궁금하도다. ㉠ 그가 죽을지 살지를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천지신명께서 효자를 보존케 하실지
그 종말을 두고 볼지이다.

[중 략]

각설 안평국 왕비가 기러기 발에 편지를 매어 보내고 회답 오기를 밤낮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왕이 내전에 들어 왕비와 더불어 옥루에 올라 난간에 비기어 앉아 성의를 생각하시고 슬픔을 금치 못하였
다. 홀연 기러기가 중천에 높이 떠서 긴 소리로 아뢰는 듯하더니 순식간에 쏜살같이 내려와 왕비 앞에 앉거
늘, 왕비가 기러기만 보아도 성의를 본 듯하여 손으로 기러기를 덥석 안고 어루만지며 살펴보니 기러기가
발에 한 통의 편지를 매고 왔는지라. 일회일비하여 급히 풀어 뜯어 보니 그 사연에 이르기를,

“불효자 성의는 삼가 백배(百拜)하옵고 부왕 전하와 모비 마마께 올리나이다. 이별이 오래되었사온데
양 전하의 기후 강녕하심을 기러기 편으로 듣자오니 반갑고 설운 마음 헤아릴 길이 없사옵나이다. 연전에
모비의 병환을 위하여 슬하를 떠나 서역을 갈 때에 천신만고 끝에 십생구사(十生九死)로 수만 리 서천
에 이르러 일영주를 얻었습니다. 돌아오던 도중 바다 가운데에서 포악한 변을 만나 뱃사람 일행을 모두
죽이고 장차 소자를 죽이려 할 때 거느린 군사 중에 태연이라 하는 사람의 힘을 입어 목숨은 보전하였
으나 두 눈을 잃고 한 조각 나무판에 태워져 푸른 파도 속으로 밀렸으니 십이 세 어린 것이 어찌 살기
를 바라리오? 파도에 밀려서 지향 없이 가옵더니 여러 날만에 겨우 한 섬에 다달았습니다. 짐작하니 언
덕이어서 더듬어 보니 바위가 있기에 바위 위에 올라 정신을 수습하였더니 바람결에 대 우는 소리가 들
려 내려가 더듬어 보니 과연 대밭이 있었습니다. 대를 베어 단저¹⁾를 만들어 슬픈 마음을 덜고 앉아 오
작에게 실과를 얻어 먹고 있었더니 천지신명이 도우사 중국 호승상이 남일국의 사신으로 다녀오시는 길
에 소자를 데려다가 보살핌을 입어 승상부에 머물게 되었던 일이며, 과거에 급제하여 부마된 전후 사연
과 호승상의 수양자된 말씀을 낱낱이 아뢰고, 공주와 더불어 고국으로 즉행하오니 또 중도에 무슨 변이
있을지 모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양친은 살피옵소서.”

하였더라. 왕비가 읽기를 마치매, 전하는 다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시더라. 왕비가 기러기를 붙들
고 통곡하여 슬퍼하시더니, 이때 세자 항의가 왕비의 곡성을 듣고 크게 놀라 들어가 엎드려 여쭙기를,

“모후는 무슨 까닭으로 이렇듯이 비창(悲愴)²⁾하십니까?”

왕비가 항의를 보고 잠잠하시거늘 항의가 일어나 사면을 살펴보니 서안에 일봉 서찰이 놓였고 또 기러기
를 어루만지시거늘 자세히 보니 이는 곧 성의의 필적이었다. 항의가 말하기를,

“㉡ 서간을 보오니 성의가 중국에 들어가 입신양명하여 부마가 되었다 하니 이는 부왕의 성덕이거늘 어
찌 그리 슬퍼하십니까? 빨리 예단을 갖추어 마중 나가시옵소서.”

하더라. 왕비가 그날로 예단을 갖추어 중로에 사신을 보내었다. 이때 전하가 항의에게 척교(勅敎)하기를, ‘중
전을 모시고 떠나지 말라.’ 하셨다.

차설, 항의가 마음속으로 헤아리되, ‘성의가 틀림없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어찌하여 살았으며 이다지 영귀
하게 되었는고. 만일 성의가 오면 나의 전후 행적이 발각되겠구나.’ 하고 매우 근심하다가 한 계교를 생각하
고 노복에게 분부하여 적부리를 부르니, 이 사람은 지혜와 용기가 매우 많았다. 적부리가 말하기를 “내 남
일국을 쳐 항복 받아 우리나라 지방을 넓히겠습니다.” 하니 그 용맹이 매우 뛰어난 자인지라. 이날 항의가
적부리를 청하여 후히 대접하고 말하기를,

“㉢ 그대가 나를 위하여 오백 군사를 거느리고 중로에 나가 매복하였다가 성의 일행을 쳐서 함몰시키고
돌아오면 천금의 상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내 장차 왕이 되는 날 무거운 소임을 맡길 것이니 그대는
힘을 다하여 성사케 하라.”

<뒷부분의 줄거리> 적부리는 항의의 명을 받아 성의의 귀환을 저지하다가, 기러기의 도움을 받은 채란공주와의 싸움에서 목숨을 잃는다. 그리고 항의도 직접 나와 싸우다가 죽게 된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성의는 안평국에 귀환하여 왕위를 계승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다.

- 작자 미상, <적성의전>

- 1) 단저 : 짧은 피리.
- 2) 비창 : 마음이 몹시 상하고 슬픔.

18. ‘편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삽화를 그리려고 한다. <보기>에서 ‘편지’의 내용과 잘 어울리는 것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2점)

<보 기>

가. 일영주를 구하러 떠나는 어린 성의에게서 비장한 의지가 엿보이도록 한다.
 나. 혼자 앉아 피리를 불고 있는 성의에게서 쓸쓸함과 처량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다. 바다에서 표류하다 뱃사람들에게 구조되어 안도하는 성의의 모습이 부각되도록 한다.
 라. 편지를 쓰는 성의의 표정을 밝은 모습으로 하여 평탄한 귀향길을 예감할 수 있게 한다.

-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19. ㉠과 같은 성격의 목소리가 나타나는 것은? (2점)

- ① 기생에게 술을 권커니 기생은 마다커니, 밀치락달치락 허다 술이 자리에 쏟아지니
- ② “허, 이 점잖은 자리를 버려 놔구나.” 도포 자락에 술을 적시어 좌우로 뿌려노니 좌중이 소란커날
- ③ 본관이 화를 내어 “오오, 운봉은 우스운 것을 다 청해 좌석이 이리 요란허우?” 이렇듯 요란하니 잔치가 되겠느냐.
- ④ 본관이 운자를 내는디, 기름 고 높을 고 두 자 운을 내노니, 어사또 한 수 해야 허는 말이 “여보, 운봉 영감, 부모덕에 추구권(抽句卷)이나 읽었으니, 나도 한 수 짓고 가겠소.”
- ⑤ 운봉 눈치 있어, 통인 불러, “너, 저 양반 지필묵 갖다 드러라.” 통인이 갖다 어사또 앞에 노니, 어사또 일 필휘지하여 글 지어 운봉 주며, “운봉은 밖으로 나가 조용헌 틈을 타서 한번 떼 보시오. 자, 나는 갑니다.”

20. ㉡에 나타난 ‘항의’의 인물됨을 평가할 때, 인용할 수 있는 작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 ② 가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 곁이 검다한들 속조차 검을소냐. / 곁 회고 속 검은 짐승은 내가 긴가 하노라.
- ③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 어디 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고. / 이제나 돌아왔나니 딴 데 마음 두지 않으리.
- ④ 반중(盤中)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 유자(柚子) 아니라도 품음직 하다마는 / 품어가 반길 이 없음으로 그것을 설워하나니.
- ⑤ 풍상이 섞어친 날에 갓 피운 황국화를 / 금분에 가득 담아 옥당(玉堂)에 보내오니 / 도리(桃李)야 꽃인 체 마라 님의 뜻을 알패라.

21. <보기>의 관점에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보 기>

문학은 단순히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구체적인 현실 세계를 반영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설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현실 세계의 모습을 어떻게 반영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① 왕위 계승을 두고 벌어지는 형제간의 갈등은 조선 후기 정치에서는 흔히 일어났던 일이라.
- ② 주인공이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고 새삼 효도란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
- ③ 주인공의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이 작품 전체에 일관되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주인공은 평면적 인물인 것 같아.
- ④ 주인공이 일영주를 구해 와서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왕위를 계승한다는 것은 서사무가 ‘바리데기’와 유사한 점이 있어.
- ⑤ 기러기는 부모와 성의를 이어주는 매개체일 뿐 아니라 적부리와 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소재로서, 이는 고전 소설의 특징인 전기성(傳奇性)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22. ㉠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실리를 내세워 상대방의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 ③ 현재의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 ④ 어려운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이 지닌 능력을 칭찬하여 스스로 행동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경제학자들은, 거래 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쪽이 정보를 갖고 있고 다른 한쪽은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시장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처럼 정보 파악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경제학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학자 애컬로프는 중고차 시장을 예로 들면서,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판매자만 자동차의 품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구매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면, ㉠ 이 중고차 시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나) 다음과 같은 중고차 시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중고차 시장에서 팔고 있는 자동차의 절반은 ‘복숭아(훌륭한 자동차)’이고 나머지 절반은 ‘레몬(결함이 있는 형편없는 차)’이다. 판매자들은 자신들이 팔고 있는 차가 레몬인지 복숭아인지 알고 있지만, 구매자들은 자동차가 레몬일 확률과 복숭아일 확률이 50%임을 알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매자가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하자. 구매자가 중고 자동차의 적정 가격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라 생각하고 판매자와 흥정을 하게 된다면 100만 원도 안 되는 레몬을 갖고 있는 판매자는 주저함 없이 이 자동차를 200만 원에 팔 것이다. 하지만 4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복숭아를 갖고 있는 판매자는 손해를 볼 수는 없으므로 팔지 않을 것이다. 판매자들은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가 몇 번 반복되다 보면 구매자는 판매자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게 될 것이다.

- (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시장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판매자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레몬일 확률이 50%나 되는데 이러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그 차를 400만 원씩이나 주고 사려는 구매자는 없을 것이다.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된 복숭아는 시장에서 점차 사라질 것이고, 가치가 거의 없는 레몬들만이 시장에 남게 될 것이다. 판매자들은 레몬을 팔기 위해 가격을 낮출 것이고, 결국 구매자들은 이전보다는 낮은 가격이지만 형편없는 레몬을 사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복숭아를 갖고 있는 판매자들은 이 시장을 떠날 것이고, 구매자들은 복숭아는 없고 레몬만을 팔고 있는 이 신뢰할 수 없는 시장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상황 때문에 이 중고차 시장은 매매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 (라) 편중된 내부 정보가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경제학자 스펜서는 유용한 정보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익을 늘리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정보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예컨대 중고차 시장에서 복숭아를 팔려고 하는 판매자라면 제대로 된 자동차 쇼룸을 구비해 놓고 구매자들이 자동차 내부를 확인해 보거나 시승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판매자는 복숭아를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게 되고 구매자도 그 품질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결국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수년에 걸친 판매 이익은 쇼룸에 대한 투자도 보상해 줄 것이다.
- (마) 경제학자 스티글리츠는 스펜서와는 정반대 방식으로 시장에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는 정보가 적은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 ‘심사’가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예컨대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 구매자는 레몬을 복숭아로 속여 파는 판매자들을 사전에 ‘위험 부류’로 분류하거나, 레몬인지 복숭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익혀 중고 자동차를 사기 전에 이를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3. (가)~(마)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 ‘정보의 비대칭’의 개념과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 ② (나) : 정보가 편중된 시장의 상황 가정
- ③ (다) :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 기능의 상실
- ④ (라) : 제공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할 필요성
- ⑤ (마) :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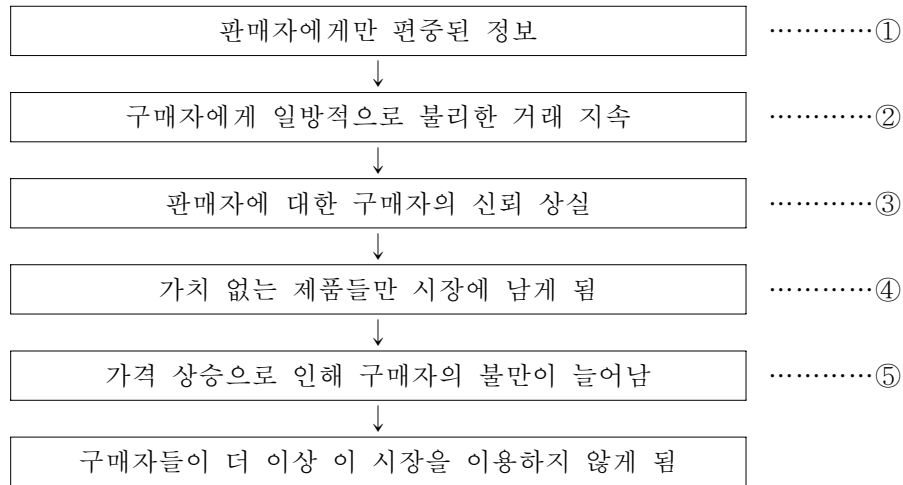
24. 위 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특 하면 아픈 A와 건강을 잘 유지해 온 B는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 C라는 생명 보험 회사의 건강 보험 상품을 계약하려고 한다. A와 B에 대한 정보가 없는 C는 A와 B에게 나이가 몇인지, 담배를 피우는지, 병으로 입원한 적은 없는지, 부모나 가까운 친척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C는 A와 B의 답변을 바탕으로 A와 B의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려고 하였다.

- ① C의 입장에서 볼 때, A는 ‘레몬’, B는 ‘복숭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C가 A와 B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게 된다면 손해 볼 확률은 낮아질 것이다.
- ③ C가 A와 B에게 질문을 한 것은 일종의 ‘심사’로, 이는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 ④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보험 가입자들이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 ⑤ 생명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자들의 신상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황은 ‘정보의 비대칭’에 해당한다.

25. ㉠이 발생하는 과정을 정리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26. ㉡의 구체적인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농산물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원산지과 출하 시기, 생산자 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 ② 백화점 정육 코너에서는 판매하고 있는 고기가 최상품임을 알리기 위해 무료 시식 행사를 하였다.
- ③ 회사에서 경력사원을 뽑을 때 경력 확인을 위해 입사 지원자들에게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 ④ 예비신랑이 예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입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감정 결과와 품질 보증서를 요구하였다.
- ⑤ 대출 담당 직원은 대출을 원하는 고객의 연봉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검토해 보았다.

[27~31] 다음 작품들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폭풍이 지나가기를 /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A]

폭풍을 두려워하며 /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스스로 폭풍이 되어

머리를 풀고 하늘을 뒤흔드는 / 저 한 그루 나무를 보라.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 속을 날으는 / 저 한 마리 새를 보라.

은사시나뭇잎 사이로 /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이 깊어갈지라도

폭풍이 지나가기를 /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 정호승, <폭풍(暴風)>

(나) 발돋움하는 발돋움하는 너의 자세는 왜
이렇게 / 두 쪽으로 갈라져서 떨어져야 하는가.

그리움으로 하여
왜 너는 이렇게 /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져야 하는가.

모든 것을 바치고도 / 왜 나중에는
이 찢어지는 아픔만을 / 가져야 하는가.

내가 네 스스로에 보내는
이별의 / 이 안타까운 눈짓만을 가져야 하는가.

왜 너는 /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떨어져서 부서진 무수한 내가
왜 이런 선연(鮮然)한 무지개로
다시 솟아야만 하는가.

- 김춘수, <분수(噴水)>

(다) 그대 아는가 /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 시퍼런 칼자국을 아는가.

질주하는 전율과 / 전율 끝에 단말마(斷末魔)를 꿈꾸는
벼랑의 직립(直立) / 그 위에 다시 벼랑은 솟는다.

그대 아는가 / 석탄기(石炭紀)의 종말을
그 때 하늘 높이 날으던 / 한 마리 장수잠자리의 추락(墜落)을.

나의 자량은 자멸(自滅)이다. / 무수한 복안(複眼)들이
그 무수한 수정체(水晶體)가 한꺼번에
박살나는 맹목(盲目)의 눈보라.

그대 아는가 /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빛줄기 / 2억 년 묵은 이 칼자국을 아는가.

- 이형기, <폭포(瀑布)>

2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 (나)의 화자는 선택 상황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 ② (가), (다)의 화자는 현재의 상황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③ (가), (다)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의지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 ④ (나), (다)에는 존재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28. [A]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3점)

- ①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 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 이육사, <꽃>

- ② 마음 어두운 밤 깊을수록 / 우리러 쳐다보면
반짝이는 그 맑은 눈빛으로 나를 씻어 / 길을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 하나 갖고 싶다.

- 이성선, <사랑하는 별 하나>

- ③ 너는 내 속에서 샘솟는다.
갈증이며 샘물인 / 샘물이며 갈증인
너는 / 내 속에서 샘솟는 / 갈증이며
샘물인 / 너는 내 속에서 샘솟는다.

- 고정희, <지울 수 없는 얼굴>

- ④ 우리가 눈발이라면 / 허공에서 쭉뚝쭉뚝 훑날리는 /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 ⑤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땃방석만하게 /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하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잘아지고 굳어지나 보다.

- 신경림, <동해 바다>

29. (나)에서 영감을 얻어 <보기>의 시를 썼다고 가정할 때,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 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

- ① 연의 수를 줄여서 시의 주제를 뚜렷하게 전달하는 것은 어떨까?
② 아픔을 통한 재탄생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소재는 없을까?
③ 의문형 어미의 사용 효과가 좋으니 이를 살려 의미를 강조하면 어떨까?
④ 좀 더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다정하게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⑤ 인공적인 '분수'에서 파악했던 시련의 상황을 자연 현상에 비유하면 어떨까?

30. <보기1>은 (다)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보기1>과 같은 설명이 적용될 수 있는 시어를 <보기2>에서 찾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1> —

4연의 마지막 시어인 ‘눈보라’에 사용된 ‘눈’은 복안(複眼), 수정체(水晶體), 맹목(盲目) 등과 관련된 ‘눈[眼, 目]’과, 겨울에 하얗게 내리는 ‘눈[雪]’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눈보라’는 장수잠자의 수많은 ‘눈’들이 쏟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하늘에서 하얀 ‘눈’이 휘몰아쳐 날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보 기 2> —

초 한 대 —

내 방에 품긴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제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제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인 심지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려 버린다.

그리고 책상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 윤동주, <초 한 대>

- ① 향내 ② 광명 ③ 심지 ④ 백옥 ⑤ 선녀

31. (가)와 (다)에 나타난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시구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② 명령형 어미를 구사하여 소망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③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비시켜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④ 사실에 바탕을 둔 묘사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⑤ 대립적 시어를 구사하여 비극적 상황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건축은 비어 있는 공간에 구조물을 만들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용도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장소는 아무 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곳이 된다. 우리는 건물을 바라보면서 흔히 “빈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웠구나.”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에 나타난 ‘빈 공간’이 바로 텅 빈 곳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공간이란 용어를 이해하게 되면 비어 있는 장소보다는 구체적인 모습을 가진 건물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A]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건물의 내부 공간 역시, 또 다른 텅 빈 곳이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내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기 쉽고, 사용 목적을 얼마나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용을 통해서 얼마나 감각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기준에 의해 공간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수용 인원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부 공간이 클수록 그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공간관을 가지고 건물을 짓다 보면 비어 있는 곳을 측량하고 이를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간에 대한 수리적·형상적 연구가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공간관은 공간을 건물이나 그 공간의 용도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공간을 비어 있음 즉 ‘없음’의 상태로 보지 않았다. 이들에게 공간은 빈 곳이 아니라 천지(天地)의 기운, 즉 자연과 인간의 본질이 되는 힘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이런 관점에서는 공간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 대상이 된다. ㉠ 천지의 기운이 사라지거나 소통하지 못하여 그 흐름이 ㉡ 막히게 되면 천지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 역시 생동감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 공간관은 조상들의 건축에 나타나 있다. 조상들은 건물의 입지(立地)를 중시하여 ㉣ 다른 곳보다 천지의 기운이 충만하고 잘 흐르는 공간을 찾아 이곳에 건물을 지으려 했다. 담장을 높이 치지 않고, 완전한 폐쇄 구조로 만들지 않은 것에도, 마당을 하늘과 땅의 기운이 집 안으로 흐르는 곳으로 보았던 조상들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집의 내부 공간인 ㉤ 대청마루가 건물 내부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지 않은 ㉥ 채로, 마당을 향한 구조로 만들어진 것에서도 마당의 기운을 실내 공간으로 유입하기 위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만약 (가)에 목적을 두었다면 이러한 구조로 집을 만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평가받았겠지만 오랫동안 우리 옛집의 구조는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우리는 주변에서 조상들의 공간 인식과는 다른 공간 인식이 반영된 건물을 쉽게 볼 수 있다. 빈 곳만 있으면 최신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 높은 건물로 채워 넣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크고 많은 ㉦ 공간들을 장식물로 채워 화려하게 만든다. 우리 옛 건축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건물은 삶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간인 셈이다. 감각적 아름다움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을 우선시하는 ㉧ 건축가들, 그리고 그러한 건축에 감탄을 표하는 사람들에게 비어 있음의 가치에 대한 성찰이 속히 요구되고 있다. 건축은 채움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 아니라 비어 있음과 채움의 조화 속에 인간 삶에 생명력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32. 구술·면접 시험에서 위 글에 대해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현대 건축의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는 글입니다.
- ②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일의 가치와 현대 사회에서 건축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 글입니다.
- ③ 건축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서양의 공간관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주장한 글입니다.
- ④ 전통 주택 구조에 나타난 장점과 단점을 고찰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할 방안을 논의한 글입니다.
- ⑤ 공간에 대한 대조적인 관점을 소개하고 전통적 공간관이 현대 건축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한 글입니다.

33. [A]를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보 기>

공간에 부여된 의미		빈 곳	
‘빈 곳’에 해당하는 공간의 종류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공간 …①	건물의 내부 공간
공간에 대한 가치 평가		구조물보다 낮은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여김. ……………②	수용 능력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여김. ……………③
공간을 ‘빈 곳’으로 인식한 결과	긍정적 결과	공간에 대한 수리적·형상적 연구가 발전함. ……④	
	부정적 결과	공간이 건물 및 용도에 종속됨. ……………⑤	

34. <보기>와 ㉠~㉣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그는 문제를 풀 때 한 번도 막히지 않고 정답을 모두 맞혔다.
 나. 고장이 난 문을 감쪽같이 고치다니 기술자는 역시 다르구나.
 다. 날이 채 어두워지기도 전에 그는 소파에 기대앉은 채로 잠들었다.

- ① <보기> 가.의 ‘막히지’는 ㉠과 달리 ‘어려운 대목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② ㉠의 ‘-히-’와 <보기> 가.의 ‘맞혔다’에 있는 ‘-히-’는 모두 결합된 어휘에 피동의 의미를 덧붙인다.
 ③ ㉡과 <보기> 나.의 ‘다르구나’는 서로 문맥적 의미가 다르다.
 ④ ㉢과 <보기> 다.의 ‘날이 채 어두워지기도 전에’에 사용된 ‘채’는 서로 품사가 다르다.
 ⑤ ㉣과 <보기> 다.의 ‘소파에 기대앉은 채로’에 사용된 ‘채’는 문맥적 의미가 서로 같다.

35. 문맥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을 중시한다.
 ② ㉡은 ㉢을 비판한다.
 ③ ㉢은 ㉡가 반영된 대상이다.
 ④ ㉣은 ㉡와 기능이 유사하다.
 ⑤ ㉤은 ㉢가 추구하는 대상이다.

36. (가)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세련된 외양과 화려한 장식보다는 소박한 자연미를 중시한 집을 짓는 일
 ② 하늘과 땅의 기운을 얻어 거주자에게 활력을 주고자 집을 짓는 일
 ③ 건물 그 자체보다는 공간의 의미를 더 중시하면서 집을 짓는 일
 ④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살도록 구조물을 세우는 일
 ⑤ 효율적인 난방과 같은 기능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만드는 일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서커스단에서 일하던 난장이 김불이는 서커스단이 문을 닫게 되어 집으로 돌아온다. 집에는 부인, 큰아들 영수, 작은아들 영호 그리고 딸 영희가 있다. 영수는 직장의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다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막 출감했다. 영호는 세차장에서, 영희는 빵집에서 일을 한다. 불이는 동네의 술집에 웨이터로 취직을 한다.

#39. 불이의 집 마당(아침)

(망치질 소리. 영수와 어머니 마주 본다. 대문을 향해 나오는 영수. ㉠ 염전 직원이 알미늄으로 된 일련 번호를 대문 기둥에 박는다.)

직원 : 번호판을 잘 지키십시오. 이 딱지가 없으면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영수의 얼굴에 불길함이 생겨난다. 언제 나왔는지 어머니도 나와 사실을 알아버린다.)

직원 : (서류장을 내밀며) 여기다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없으면 지장을 찍어도 되고…….

(영수가 어두운 얼굴로 지장을 찍어 준다. 직원은 봉투를 내밀고 사라진다. 영수는 봉투에 든 인쇄물을 빼어 읽는다.)

어머니 : 뭐니?

영수 : (다 읽고 난 후 망연하여) 염전이 폐쇄되구 공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땅을 비워 달래요.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진다.)

어머니 : …… 올 것이 (목이 막힌다.) 기어코 오고 말았구나.

(잠시 침묵이 흐른다.)

어머니 : 어젯밤엔 불길한 꿈도 꾸지 않았는데…….

(들어가 억제하려는 듯, 하던 장갑 일을 한다.)

어머니 : 뭐라 했는지 더 읽어 봐라.

영수 : 회사 부지 내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8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래요.

어머니 : (아무렇지도 않은 듯) 놀랄 것 없다. 우리에게 꼭 찾아들 것들 중 하나니까. 그거 이리 다오.

(계고장을 받아 부엌으로 향한다.)

어머니 : (뒷모습인 채) ㉡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로구나.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건다. 영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본다.)

#40. 부엌

(어머니가 죽은 듯이 숟뚜경을 잡은 채 이마를 대고 엎드려 있다. 영수가 어머니를 부른다. 어머니의 대답이 없자 부엌문을 열러 한다. 열리지 않는 문, 문을 흔들며 어머니를 부르는 영수의 목소리 점점 커진다.)

어머니 : 난 괜찮다. 아버지를 찾아와 다오. 아버지께 알려야지.

(영수, 더 이상 어머니를 부르지 않고 집밖으로 나간다. 비로소 숨을 몰아쉬며 혈떡이던 어머니가 오열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는다.)

[중 략]

#53. 방죽

(황혼의 물 위에 조그만 배가 떠 있다.)

영수 : 아버지! / 불이 : 타라.

영수 : 아버지, 왜 그러세요? / 불이 : 타라니까!

(영수, 배에 오른다.)

불이 : 아무리 네 어머니라도 여기서 하는 애긴 듣지 못할 거다.

영수 : 예, 아버지.

불이 : 넌 장남이다. / 영수 : 예.

불이 : 아버지를 믿지 마라.

영수 : 아버진 이제 쉬실 때도 되셨어요.

불이 : 내 말은 그게 아니다. / 영수 : …….

불이 : ㉠ 나는 달나라로 가고 싶다. / 영수 : …….

불이 : 거기서 천문대 일을 보고 싶다. 망원경으로 오십억 광년 저쪽에 있는 머리카락좌의 별구름을 보는 거다.

영수 : 아버진 달나라로 갈 수 없어요.

불이 : 너는 내가 언제까지나 칼이나 갈아주고 술집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니. 서커스단을 따라 다니려고 해도 한물갔어. 약장수 따라다니는 건 네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고, 이제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너희들에게 짐이 되는 것뿐이다.

영수 : 아버지! 아버진 저희들을 위해 평생을 일했어요. 이젠 저희들이 일할 차례예요.

불이 : 나는 남들처럼 너희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못했다.

영수 : 저희들을 낳아 주셨어요.

불이 : 그래, 그것 하나만은 사실이다. 모두가 네 어머니를 잘 얻은 덕분이야.

영수 : 어머니 이 세상 어느 어머니보다도 훌륭하세요.

(두 사람은 한동안 함께 킬킬 웃는다. 그 얼굴에 번득이는 눈물.)

불이 : 그래서 말인데, 내겐 꿈이 있다. ㉡ 난 네 어머니를 위해 달나라에다가 릴리프트 마을을 건설할 참이다.

영수 : 릴리프트. (킬킬 웃으며) 걸리버 여행기를 읽으셨군요.

불이 : (신나서) 그래, 너도 알고 있었구나. 달에다 난장이 마을을 건설하는 거야. 그곳엔 난장이 남편을 두었다고 네 어머니를 업신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영수 : …….

불이 : 그곳에 평등하지 않은 것은 없다. 폭력도, 공포도, 억압도, 가난과 고통 또한 그곳에선 찾을 수 없다. 그곳은 오직 사랑만이 존재한다. 사랑으로 바람을 부르며 사랑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랑으로 일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대한다. 그곳에서 강요되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어야 한다. ㉢ 그곳에도 법은 만들어져야겠지. 하지만 그건 오직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들을 벌주기 위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릴리프트 마을로 네 어머니를 모셔다가 여왕으로 삼을 작정이다.

37. 위 글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난장이’ 가족의 적개심이 표출되면서 이들을 둘러싼 세계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② ‘난장이’ 가족 그리고 이들과 유사한 처지의 사람들이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 ③ 주어진 운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난장이’ 가족의 행동이 드러나고 있다.
- ④ ‘난장이’ 가족은 가지지 못한 자들과 가진 자들의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⑤ ‘난장이’ 가족의 외부로부터 발단이 된 사건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절망과 자괴감을 유발하고 있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 - 금속의 차가움 및 번호의 비인격성을 동시에 지닌 번호판은 비인간적 사회의 냉정함을 상징한다.
- ② ㉡ - 가족에게 닥쳐 온 불행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단호하게 드러나고 있다.
- ③ ㉢ - 더 이상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지상의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표출이다.
- ④ ㉡ - 고달픈 삶에 지친 아내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휴식과 기쁨을 주고 싶은 소망이 나타나 있다.
- ⑤ ㉢ - 그곳과는 달리 현실에는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9. 수업 시간에 ‘불이’의 태도에 대해 논의한 것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논의의 과정	논의의 초점	학생들의 의견
대상의 파악	자신의 삶에 대한 ‘불이’의 태도	‘불이’는 세상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자신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일 뿐이라고 단정하였다. ----- ㉠
↓		
대상의 문제점 인식	‘불이’의 태도가 가진 문제점	자신의 삶에 대한 ‘불이’의 비관적 태도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	가. 인간은 노력을 통해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나. 이 세상에 무가치한 인간은 없다.	가. ‘불이’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은 ‘불이’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 ㉡ 나. ‘불이’는 자식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들	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적극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나. 아버지로서 가족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가. ‘불이’가 장애인인긴 하나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하고 있는 일도 오래 할 수 있을 것이고 의지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새롭게 찾아 할 수 있을 것이다. ----- ㉢ 나. 자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자식들은 ‘불이’를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라 여길 것이다. ----- ㉣
↓		
제안에 대한 비판	* ‘제안 가.’에 대하여 - 현실에는 사회적 약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난장이’ 남편을 둔 아내를 업신여길 정도의 세상에서는 ‘불이’가 적극적 태도로 일했다 할지라도, 난장이인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며, 일반인들이 갖는 직업을 새롭게 찾는 일도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40. <보기>는 위 글과 관련된 소설의 일부이다. 위 글과 <보기>를 고려하여 내린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영호 : 아버지와 큰오빠의 이야기를 할 때는 자세를 바로 해.

영희 : 그렇게.

영호 : 아무 때나 이야기하지도 말구.

영희 : 알았어. 오빠가 화를 낼까 봐 말도 잘 못 하겠어. 그렇지만 행복동(幸福洞)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싸운 병사가 아버지였다는 생각, 오빠는 안 들어? 아버지는 작고 투명한 유리병정이었어. 누구나 아버지 속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었지. 약한 아버지는 무엇 하나 숨길 수도 없었어. 하루하루의 싸움에서 유리병정은 후퇴만 했어. 어느 날, 더 이상 후퇴해 디딜 땅이 없다는 걸 작고 투명한 유리병정은 알았어. 유리병정은 쓰러지고 깨어져 피를 흘렸어. 그렇게 작고 그렇게 투명한 몸 어디에 그것이 있었을까. 큰오빠도 아버지와 같은 유리병정이었어. 난 알아. 큰오빠는 후퇴를 하지 않았어. 큰오빠 이야기를 난 길게 하래도 못 하겠어. …… 뜨거운 무엇이 내 목을 막아.

- 조세희, <신에게는 잘못이 없다. : 난장이 마을의 유리병정>

- ① <보기>에 제시된 ‘행복동(幸福洞)’은 반어적 성격을 가진 표현이라 볼 수 있을 거야.
- ② <보기>에서 ‘아버지’에게 ‘디딜 땅’이 없었다고 한 말은, ‘불이’가 한계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
- ③ <보기>에 나타난 ‘유리병정’의 깨짐은 ‘불이’가 결국 현실의 모순을 극복할 수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어.
- ④ <보기>에서 언급된 ‘유리병정’이 흘린 ‘피’는 ‘불이’의 전부였던 ‘아내’와 ‘자식들’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
- ⑤ <보기>에서 ‘영수’가 ‘후퇴’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가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는 태도를 가졌음을 짐작하게 해주는군.